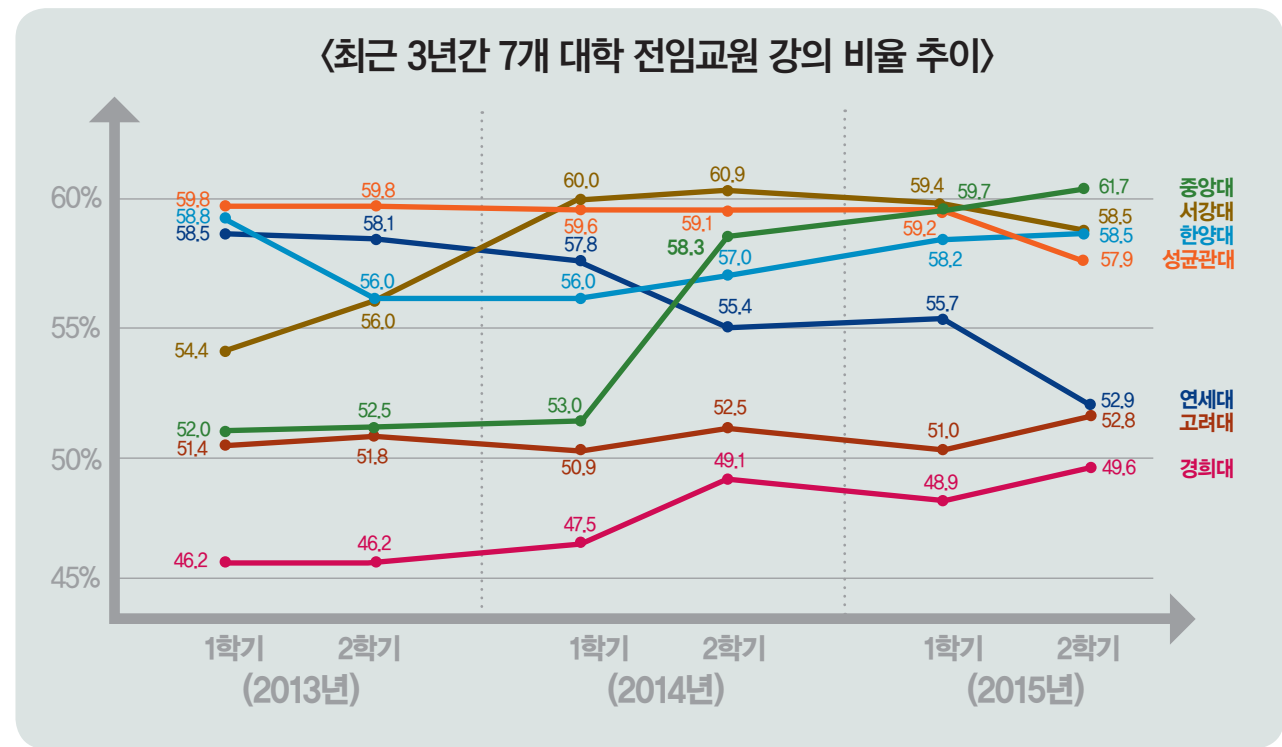


보도

책임시수 상향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교수의회, “절차와 소통 무시한 일방적 처사”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전임교원 책임수사가 현행 연간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 조정 된다. 대학은 지난 24일 합동교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법인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회의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논의과정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신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낮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대학보다 낮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시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9.3%로, 사립대학 평균인 6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경쟁대학(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이라 할 수 있는 6개 대학 중에서도 가장 낮다.

지난 20일 부총장단 명의로 전체 교수에게 발송된 서신에 따르면, '현재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50% 이하며, 국내 주요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대내·외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책임시수를 15시수로 변

경'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책임이 수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등을 주장하며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에 대해 반대여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연구에 전담할 교수와 교육에 전담할 교수로 나뉘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군대 서울부총장은 “부총장단 명의
로 메일을 보낸 것은 다음 학기 강의 조
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미리 밝힌 것”이라며 “지난
24일 합동교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
해 논의가 끝났고 이사회 상정절차가 끝
진행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고 말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채용
된 교수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뒤 적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 업적평가에 따
라 책임인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비교

경희대 12시간

성균관대 -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고려대 12시간

한양대 - 15시간 학부 1강좌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서울대 18시간

연세대 12시간

중앙대 12~15 시간



‘옷장을 열면’ 안 입는 옷이 한가득!

청운관 지하 2층 의류편집숍 '옷장을 열면'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서울】 지난 25일 청운관 지하 2층 학생식당 입구 옆 공간에 ‘웃장을 열면’이라는 의류 편집숍이 문을 열었다. ‘웃장을 열면’은 일반인이나 의류 제작자에게 물품을 받아 대신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가게다. 이 편집숍의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자인 채수영(연론정보대학 2012) 군을 만났다.

채 군은 지난 9월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주관한 대안프로젝트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 준비에 쓸 200만 원과 시설 투자를 위한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창업을 위한 학교 공간 일부를 제공받아 이 편집숍을 차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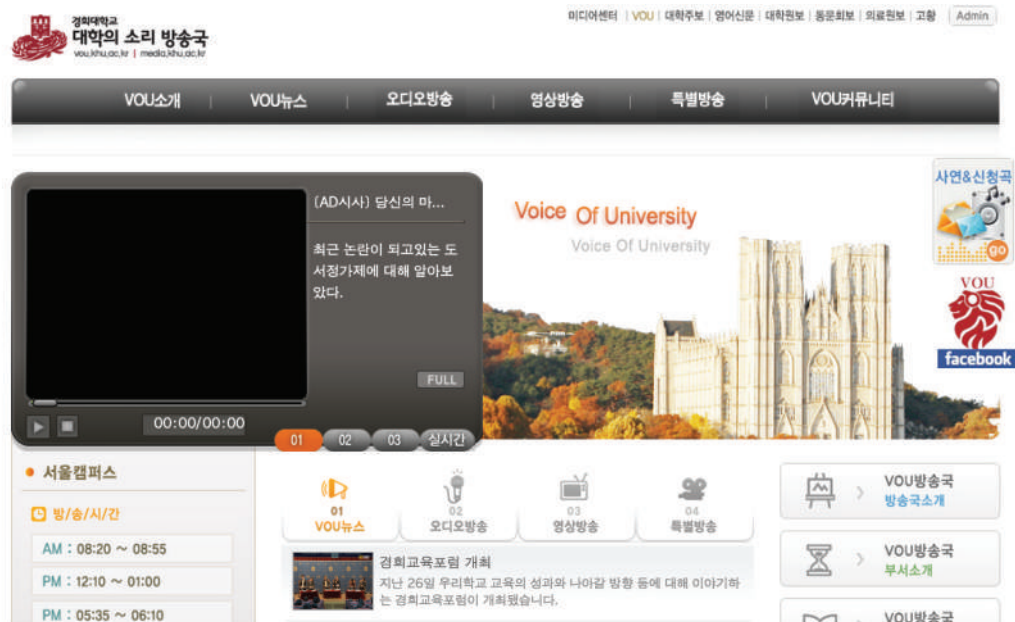
채 군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패션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곤 했다. 그는 “예전부터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마네킨에 입혀놓은 대로 구입하거나, 점원에게 어울리는 옷들을 무조건 골라달라고 부탁했다”는 웃지 못 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가 패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단지 ‘옷 고르는 감’이 다소 부족했을 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 군은 유

명 패션잡지를 찾아 읽거나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관찰해 사진으로 남겼다. 또한 패션 위크(Fashion week)에 열리는 패션쇼를 관람하고 칼럼을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뒤, 페이스북 ‘옷장을 열면’ 페이지를 개설했다.

패션관련 여러 활동을 통해, 채 군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류학도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옷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게 됐다. 그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라며 “그들의 브랜드를 경희구성원이라는 소비자에게 알려,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기획한 창업 프로젝트 ‘웃장을 열면’은 일반인에게 중고 의류나 액세서리 등을 받아 대신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플리마켓의 형태를 띤다. 또한 온라인 패션몰에서 물품을 조달받아 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웃장을 열면’ 프로젝트가 가진 본연의 목적은 ‘의류학도나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그들이 제작한 옷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상 이유에 대해 채 군은 “창업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대회였다면 분명 떨어졌을 거다. 대안사회 구상에 초점을 둔 생협은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지 않는 ‘웃장을 열면’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웃장을 열면’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든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ی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소리방송국